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3, 801 - 813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의 타당화

정 민[†] 노 안 영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축약형 생활양식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검사도구의 문항을 확정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처럼 세 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생활양식 검사의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는 기존 생활양식 척도인 BASIS-A와 정적 상관을 보여 본 검사도구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는 불안 및 자존감과 부적 상관 및 정적 상관을 보여 본 검사 도구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울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생활양식 검사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본 검사도구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도구가 생활양식 구인들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와 추후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생활양식,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틀러 이론을 근거로 한 개인 심리학 상담에서는 중요하다. 생활양식이란 사고, 감정, 행위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모든 표현의 자기 일관된 통합체로(Ansbacher & Ansbacher, 1956) 생활양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

신념, 태도, 목표, 관심, 개인의 현실적 지각 등이 표현되므로 그 사람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적응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삶의 방향을 예측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중, 2001). 이러한 생활양식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민,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700번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Tel: 019-619-8828, E-mail: saiyoenj@hanmail.net

개인의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들러는 부적응은 그릇된 생활양식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또한 생활양식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경증 환자, 정신병 환자, 범죄자, 알코올중독자, 문제 아동들은 사회적 관심을 결여하고 있으며 직업, 우정, 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노안영 외, 2001).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생활양식은 스트레스(Kern, Gfroerer, Curlette, & Matheny, 1996), 자아효능감(Dinter, 2000) 등 심리적인 변인들과 상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긍정적인 생활양식을 가질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신병리를 측정하는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MCMI-II (Milli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II)의 성격장애와도 높은 상관을 보이며(Bertelson, 1991), 과잉행동장애(Kern, Rasmseesn, Byrd, & Wittschen, 1999), 음주문제(노안영, 정민, 2003), 컴퓨터 중독(정민, 2004) 등 정신병리적인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양식은 개인의 현재 및 미래 삶에 대한 예측 방향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응·부적응을 파악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

개인심리학 상담에서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잘못된 생활양식을 바꿔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면담 등을 통해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파악하지만 미숙련된 상담자의 경우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및 생활양식 요인들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Shulman & Mosak,

1988). 따라서 표준화된 질문지를 통해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생활양식 검사도구로는 IDP(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Leary, 1957), LSA(Life-Style Analysis: Thorne, 1965), LSI(The Life Style Inventory: Mosak & Shulman, 1971), Mosak's Typology(Mosak, 1971), LSQI(Life Style Questionnaire Inventory: Kern, 1976), SALS(The Self-Administering Life-Style Inventory: West & Bubbenzer, 1978), LSS(Life-Style Scale: Kern, 1982), KLS(Kern's Life Style Scale: Kern, 1982), LSPI(Life Style Personality Inventory: Wheeler, Kern, & Curlette, 1986), 가장 최근에 나온 BASIS-A (Basic Adlerian Scales for Interpersonal Success-Adult Form: Kern, Wheeler, & Curlette, 1993)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용 생활양식 검사인 CLSS(The Child Life Style Scale: Stiles & Wilborn, 1992), BASIS-C(Basic Adaptive Styles in Schools-Childhood Inventory: Curlette, Wheeler, & Kern, 1997)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아들러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양식 검사도구가 꾸준히 개발되어 발전되어 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양식 검사도구가 별로 개발되지 않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활양식 검사도구로는 정민과 노안영(2002)이 아들러가 주장했던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을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생활양식을 분류하는 생활양식 검사, KLS(Kern's Life Style Scale)를 노안영과 정민(2003)이 번안하여 사용한 검사, BASIS-A(Basic Adlerian Scales for Interpersonal Success-Adult Form)를 정민(2004)이 번안하여 소개한 검사 등

이 있다. 아동용으로는 박경순(1996)이 아들러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생활양식 척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소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생활양식 검사 도구는 미국의 생활양식 척도를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양식 척도에 포함된 미국적인 속담을 활용한 문항들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속담이 주는 느낌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한계가 있으며 검사 점수의 준거 또한 신뢰롭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민과 노안영(2006)이 인생과제인 진로, 대인관계,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생활양식 검사를 개발한 바 있다. 정민과 노안영(2006)이 개발한 한국형 생활양식 검사 도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인생과제에 직면해서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정민과 노안영(2006)에 의해서 개발된 한국형 생활양식 검사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 근거해서 진로영역에 결정 및 현실성, 실천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확신의 5개 요인, 이성교제 영역에 만족도 및 친밀성, 이성불안의 2개 요인, 대인관계 영역에 만족도 및 적극성, 대인불안, 친밀성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양식 검사가 인생과제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세부적인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생활양식을 측정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유용한 검사도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요인 내에서도 서로 다른 하위 요인에 중복되는 문항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많아 MMPI, TAT 등 다른 검사도구들을 함께 사용해서 평가해야하는 임상장면에서 검사자, 수검자 모두에게

반응과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검사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명할수록 바람직하고(탁진국, 2007). 시간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영역의 문제를 진행하기 위한 간단한 검사가 필요하다(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뿐만 아니라 한국형 생활양식 검사를 제작할 때 진로영역의 경우 Adler이론을 바탕으로 Super, Cites 이론 등 진로 발달 이론이 추가되면서 Adler이론과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Adler이론을 근거로 한 축약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인구조의 안정성 및 신뢰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된 생활양식 검사를 Adler이론을 바탕으로 좀 더 간명하게 축약형 검사도구로 제작하고 축약형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먼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 및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 도구에 대한 요인구조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양식 검사도구인 BASIS-A와의 상관을 통해 본 검사도구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적응·부적응을 나타내는 불안, 자존감 등의 정신 건강 검사도구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개발된 축약형 한국형 생활양식 검사의 공준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우울증 집단과 일반 대학생의 비교집단간의 생활양식 차이를 통해 본 검사 도구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의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지역의 대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학생은 129명(41.3%), 여학생은 183명(58.7%)으로 1학년 73명, 2학년 67명, 3학년 89명, 4학년 83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0.71세였다. 또한 검사 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중 103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의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남학생은 57명(55%), 여학생은 46명(45%)이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검사, BASIS-A, SCL-90-R, 자존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남학생은 134명(52.76%), 여학생은 120명(47.24%)으로 평균 나이는 20.26세였다. 또한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20세에서 27세 사이의 우울증 집단은 27명으로 남자 4명(14.8%), 여자 23명(85.2%), 일반대학생은 31명으로 남자 15명(48.4%), 여자 16명(51.6%)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 정민, 노안영(2006)이 개발한 생활양식 검사는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등 3개 하위 척도 103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진

로의 경우 진로 결정 및 현실성, 실천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 확신의 5개요인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성교제의 경우 만족도 및 친밀성, 이성불안의 2개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인관계의 경우 만족도 및 적극성, 대인불안, 친밀성의 3개요인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는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해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문항이 각각 10문항씩 30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본 검사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연구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BASIS-A(Basis Adlerian Scales for Interpersonal Success). BASIS-A는 Kern, Wheeler, Curlette(1993)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이 도구는 아들러 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생활양식 검사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위 요인은 소속-사회적 관심 갖기, 결정에 따르기, 주도권 잡기, 기쁘게 하기, 신중하기의 다섯 가지 주요한 요인과 거침, 관심받기, 연결하기, 완벽주의, 부드러움의 부가적인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검사에서 신뢰도는 전체 내적 일치도 α 가 .688, 소속-사회적 관심 .742, 전진하기 .670, 주도권 잡기 .862, 기쁘게 하기 .793, 신중하기 .824, 거침 .714, 관심받기 .647, 사랑받기 .697, 완벽함 추구 .611, 부드러움 .661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SCL-90-R).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제

작하였다.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대로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1점)에서 '아주 심하다'(5점) 척도로 평정한다. 소척도의 내용은 불안척도, 신체화척도, 우울증척도, 편집증척도, 정신증척도, 예민성척도 등의 6개이다. 생활양식 검사와의 공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 일치도 α 는 .872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집단과 비교집단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 일치도 α 는 .762로 나타났다.

자존감. Rosenberg가 개발한 검사를 이영자(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존감 5문항, 부정적 자존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4점 척도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 사이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검사의 내적 일치도 α 는 .838을 나타냈다.

절차

본 연구는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의 타당화를 위해 검사는 2007년 4월에서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서울 지역의 대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에 적절한 문항을 선별하였다. 문항분석은 상관이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면서 신뢰도를 살펴보고, 주축요인법의 Oblimin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AMOS 프로그램을 통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 안정성과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에 개발된 생활양식 검사도구(BASIS-A)와의 상관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 불안, 자존감과의 상관을 통해 공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섯 번째, 우울집단과 비교집단의 생활양식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살펴봄으로써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결 과

요인구조의 안정성

정민과 노안영(2006)이 개발한 생활양식 검사에 대한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문항을 각각 10문항씩 30문항을 선별하였다. 103문항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 2문항이 제거되었으며 102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901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p < .001$ 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개수를 3개로 정하여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의 Oblimin회전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최종 선발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간 상관표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세 요인에 대한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chi^2 = 1057.626$ $df = 402$, $p < .001$, χ^2 값은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지지하지 않지만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TLI = .965, CFI = .958로 기준치인 .90이상으로 요인구

표 1.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의 요인구조(N = 312)

생활양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분산
진로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501	.213	.146	.510
	나에게 호감을 주는 직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525	.157	.102	.416
	장래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542	.176	.097	.524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매사를 충실히 하고 있다.	.545	.125	.175	.497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574	.123	.125	.478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662	.136	.129	.451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417	.186	.173	.420
	나의 능력을 고려해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본 적이 있다.	.470	.176	.164	.406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722	.206	.146	.472
이성교제	진로 결정이 주변 사람들(친구, 선·후배)의 의견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다.	.768	.219	.187	.421
	현재 나의 이성교제 상태에 만족한다.	.103	.464	.243	.476
	이성 친구에게 나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한다.	.124	.710	.219	.415
	이성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126	.702	.204	.416
	이성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40	.754	.205	.514
	이성 친구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103	.779	.220	.501
	이성 친구는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167	.698	.211	.406
	이성친구와 공통된 관심사(취미, 흥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42	.611	.184	.429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두렵다.	.168	.687	.196	.407
대인관계	이성의 친구와 함께 있으면 불안하다.	.172	.533	.173	.445
	나의 이성교제가 실패로 끝날까 걱정된다.	.126	.447	.149	.493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먼저 노력한다.	.175	.267	.542	.512
	주위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125	.231	.504	.43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104	.291	.406	.419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한다.	.168	.235	.498	.478
	내 친구들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다.	.015	.274	.510	.513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가 좋다는 말을 듣는다.	.057	.102	.478	.502
	친구가 힘들 때 먼저 찾아가서 친구를 위로해 준다.	.069	.174	.426	.409
다른 사람들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집단에 소속하기 힘들다.	.189	.203	.418	.478
	내가 속한 집단의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나에게서 스트레스다.	.139	.241	.508	.426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피한다.	.172	.204	.511	.499
	고유가	7.875	6.384	6.105	13.769
	설명변량	57.202	46.365	44.339	
누적변량	57.202	103.567	147.906		
신뢰도	.850	.869	.891		

표 2.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 요인간 상관표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진로	-		
이성교제	.215	-	
대인관계	.203	.365	-

조의 적합도를 충족하고 있다(Stevens, 1996). 또한 RMSEA = .068로 연구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양식 검사 구조모형에서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는 .57에서 .8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 도구의 요인구조에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내적 일관성

본 검사에서 신뢰도는 전체 내적 일치도 α 가 .921, 진로 .850, 이성교제 .869, 대인관계 .89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정민과 노안영(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진로가 .735~.897, 이성교제가 .869~.903, 대인관계가 .764~.810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3주 간격 재검-재검사 신뢰도는(탁진국, 2007) 전체가 .810, 진로 .854, 이성교제 .812, 대인관계 .865로 나타났다. .8이상의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타당도

준거타당도

본 검사 도구의 준거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BASIS-A를 외적 준거로 사용하였다. 본 생활양식 검사와 BASIS-A 하위 요인과의 상관결과는 표 3이다.

표 3을 살펴보면, BASIS-A의 전진하기, 관심받기를 제외하고 축약형 생활양식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생활양식 검사도구와 기존 생활양식 검사 도구인 BASIS-A간의 유의미한 상관은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 생활양식 검사 도구와 BASIS-A와 유의미한 상관이 많지 않은 결과와 비교해서 축약형이 더욱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존타당도

생활양식 검사 도구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생활양식과 관련된다고 시사되는 불안 및 자존감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생활양식 하위 요인과 불안, 자존감간의 상관결과가 표 4이다.

표 3. 생활양식과 BASIS-A와의 상관

BASIS-A 생활양식	소속-사회적 관심	전진 하기	주도권 잡기	기쁘게 하기	신중 하기	거침	관심 받기	사랑 받기	완벽함 추구	부드 러움	합
진로	.253***	.054	.070	.296***	-.272***	-.325***	.079	.224**	.320***	.269***	.234***
이성교제	.384***	.031	.288***	.289***	-.248**	-.302***	.076	.218**	.352***	.276***	.382***
대인관계	.451***	.009	.134*	.284***	-.175**	-.295***	.041	.240***	.308***	.360***	.362***
생활양식	.414***	.015	.175*	.358***	-.204**	-.315***	.079	.301***	.324***	.373***	.397***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4를 살펴보면, 생활양식 하위 요인과 불안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생활양식 하위 요인과 자존감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양식 검사도구가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계가 있으며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긍정성과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변별타당도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우울집단과 일반 대학생을 비교집단으로 생활양식 하위요인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이다. 두 집단 간에 생활양식 하위요인 점수를 비교한 결과 생활양식 총합, $F = 58.730, p < .001$, 진로, $F = 23.874, p < .001$, 이성교제, $F = 67.099, p < .001$, 대인관계, $F = 18.928, p < .001$,에서 모두 우울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우울집단의 SCL-90-R 우울증점수는 30.96점(표준편차 6.40점)이고 비교집단의 SCL-90-R 우울증점수는 24.68(표준편차 6.59점)이었다.

논 의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상담자나 내담자에게 모두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락에서 Adler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 문항을 선정하고 요인 구조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표준화된 생활양식 검사인 BASIS-A와의 상관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표 4. 생활양식과 불안 및 자존감간의 상관계수

생활양식	불안	자존감
진로	-.253***	.520***
이성교제	-.317***	.527***
대인관계	-.293***	.579***
생활양식 총합	-.267**	.348***

주. ** $p < .01$, *** $p < .001$

표 5. 대학생 집단과 우울장애 집단에 대한 생활양식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생활양식	우울집단	비교집단	$F(1, 73)$
	($n = 34$)	($n = 40$)	
진로확신	2.01(.62)	2.76(.54)	23.874***
이성교제	2.17(.32)	3.02(.38)	69.099***
대인관계	2.01(.59)	2.69(.59)	18.928***
생활양식 총합	2.22(.44)	3.06(.39)	58.730***

주. *** $p < .001$

생활양식과 불안, 자존감간의 상관을 통해 공존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우울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생활양식 점수 차이를 통해 변별타당도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가 전반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개발된 검사도구가 많은 문항이 여러 요인에 중복되어 복잡하다는 점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3개 요인으로 구성된 타당한 검사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변량 구조 방정식을 통해 검증되었다.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TLI, CFI가 기준치인 0.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가 .80 미만으로 나타나 정민과 노안영(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가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Stevens, 1996).

둘째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80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80 이상으로 나타나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민과 노안영(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735에서 .903과 유사하다. 그리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701에서 .935와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형 생활양식 검사도구가 신뢰할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도는 문항 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검사에 비해 문항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도구가 신뢰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생활양식과 기존의 생활양식 검사 도구인 BASIS-A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활양식 검사도구인 BASIS-A와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 도구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보여주는 결과로 정민, 노안영(2006)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상관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도구의 높은 준거타당도를 보여주고 있다.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도구의 진로요인과 BASIS-A의 하위 요인과의 유의미한 상관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등이 생활양식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德勒는 일, 사랑, 우정 등의 인생과제를 통해 생활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사회적 관심은 생활양식과 밀접하다고 주장했다(Adler, 1958).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아德勒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넷째, 공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생활양식과 관련 있는 변인인 불안, 자존감과 생활양식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생활양식 하위 요인은 불안, 자존감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상하 유용형 집단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한 박경순(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생활양식이 낮은 자아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인 Dinter(2000)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생활양식 하위 요인인 진로와 불안 및 자존감간의 상관관계는

김봉환과 김계현(1995)이 진로 미결정과 불안간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주장한 결과와 김현옥(1989)이 진로성숙과 자아개념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주장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성교제 또한 이성교제 문제가 단순한 고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부진, 심리·정서적 장애로까지 악화된다고 주장했던 이정호(1992)의 연구결과처럼 대학생의 주요한 발달과제인 이성교제는 불안 및 자존감과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요인임이 본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대인관계 또한 불안 및 자존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책임적 대인관계성향이 있으며,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반항적-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이 있음을 보여준 황경옥(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우리 문화에서 학생들에게 대학은 복잡한 대인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많은 대인관계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한 대인관계 능력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자존감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양식 검사도구의 공준타당도가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우울집단과 일반대학생의 비교집단 간에 생활양식에 차이가 있는지 변별타당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활양식 하위 요인 모두에서 우울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양식과 우울간에 상관이 있다는 Sperry(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생활양식이 앞으로 우울증을 예언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예방상담을 위한 생활양식 검사도구의 효율적인 활용 가치를 시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가 생활양식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축약형 생활양식 검사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들러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근거 하에 좀 더 간명하게 제작된 검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조력하기 위해 타당한 생활양식 검사도구가 필요하다. 아들러는 생활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구조, 초기회상, 출생순위, 인생과제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다(Adler, 1958). 본 검사 도구는 아들러가 제안한 모든 요인들을 다 측정해내지는 못하지만 주요한 요인인 인생과제를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생활양식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개발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BASIS-A의 경우 초기회상을 중심으로 일, 사랑, 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고 하지만 문항을 살펴보면 주로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Kern, Wheeler, & Curlette, 1993).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생활양식은 어떠한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아들러 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문항을 바탕으로 제작된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본 연구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생활양식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요인구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검사도구의 일반화를 위한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전국 단위

의 체계적인 표집을 통해 준거가 마련된다면 상담 장면뿐만 아니라 성인의 생활양식 파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양식 검사도구가 기존의 생활양식 척도와 불안, 자존감 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생활양식의 진로, 이성교제, 대인관계 각 요인들이 우울, 불안, 자존감 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생활양식이 적응,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생활양식이 우울집단과 비교 집단을 변별해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이 본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생활양식 검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서울,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대로 확장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본 검사 도구의 활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양식 검사의 준거가 필요하다. 생활양식과 우울, 불안, 자존감 등과의 단순상관을 통해 생활양식이 이러한 요인과 상관이 있음을 보였지만 그 기준점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밝힌다면 현장에서 생활양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상담자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보고형 척도의 타당도를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생활양식 요인별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과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이 실제 불안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불안 상황 조건을 통한 실험 연구 등을 통해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생활양식을 재정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상담 실제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꼭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봉환, 김계현 (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 20-43.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중 (2001). 애틀러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노안영, 정민 (2003).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상담학연구, 4, 5-18.
- 박경순 (1996). 중학생의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정호 (1992). 대학생들의 설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민 (2004). 대학생의 게임중독 특성 분석. 대학생생활연구, 6, 3-20. 동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민, 노안영 (2002). 생활양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375-387.
- 정민, 노안영 (2006). 대학생의 인생과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 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547-567.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황경옥 (2002).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 청구논문.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 (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923-940.
- Adler, A. (1958).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New York: Perigee Books.
- Ansbacher, H. L., & Ansbacher, R. R.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New York: Basic Books.
- Bertelson, S. K. (1991). *Clinical correlates of life style patterns found in psychiatric inpatients*.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Curlette, W., Wheeler, M., & Kern, R. (1997). *BASIS-C Inventory*. Highlands, NC: TRT Associates.
- Dinter, L. D.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ifestyle patterns. *The Journal of Psychology*, 56, 462-473.
- Kern, M. R. (1976). *Life style inventory questionnaire*. Atlanta: Georgia State University.
- Kern, M. R. (1982). *Life style scale*. Coral Springs, FL: CMI Press.
- Kern, M. R., Gfroerer, K., Curlette, W., & Matheny, K. (1996). Life-style, personality and stress coping.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2, 42-53.
- Kern, M. R., Rasmussen, R. P., Byrd, L. S., & Wittschen, K. L. (1999). Lifestyle, personality,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young adults.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5, 186-199.
- Kern, M. R., Wheeler, M. S., & Curlette, L. W. (1993). *BASIS-A inventory interpretive manual*. NC: TRT Associates, Inc.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 Mosak, H. H. (1971). *Techniques for behavior change: Applications of Adlerian theor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Mosak, H. H., Shulman, B. H. (1971). *The life style inventory*. Chicago: Alfred Adler Institute.
- Shulman, H. Bernard, & Mosak, H. Harold. (1988). *Manual for Life Style Assessment*. Florence: Accelerated Development.
- Sperry, L. (1987). Common psychiatric presentations in clinical practice: DSM-III and dynamic formulations. *Individual Psychology: The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46, 193-202.
- Stevens, J. (1993).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tiles, Kathleen, & Wilborn, Bobbie. (1992). A life-style instrument for children.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48, 96-106.
- Thorne, F. C. (1965). *The life style analysis*. Brandon, VT: Clinical Psychology Publishing Co.
- West, J. D., & Bubenzer, D. L. (1978). A factor analytic consideration of life style data.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4, 48-54.
- Wheeler, M. S., Kern, R. M., & Curlette, L. W. (1986). Factor analytical scales designed to measure Adlerian life style themes. *Individual Psychology: The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2, 1-16.

원고접수일: 2008년 1월 28일

수정원고접수일: 2008년 8월 16일

게재결정일: 2008년 8월 26일

Validation of the Shortened Lifestyle Scale

Jeong, Min Noh, Ann Yo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lifestyle scale for college students. It was found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factors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ree factors, that is, the career, the dating,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composed of the lifestyle scale. Alpha-coefficient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high.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scale was supported by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lifestyle scale and BASIS-A.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cale was supported by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lifestyle scale and other scales, that is, SCL-90-R and the self esteem scale. The discriminant validity of scale was supported by the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s at lifestyle scores between depressed students and compared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lifestyle scale have validity as a lifestyle test.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finally.

Key words: lifestyle, career, da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